

“3.1운동 정신 계승해 남북관계 개선하라”

민족화해평화 종교인모임, 2월 29일 기자회견서

5대 종교 지도자들이 3.1운동의 ‘비폭력, 평화’ 정신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계승해야 한다는 데 공의를 모았다.

민족화해평화종교인모임(이하 민화평)은 2월 29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민족의 평화와 화해, 신뢰회복을 위한 종교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남수 천도교 교령의 여는 말씀에 이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발언, 성명서 낭독 등이 진행됐다.

민화평은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화평은 “전쟁의 공포, 민족의 갈등과 분열 앞에서 우리는 3.1운동 당시 선조들의 민족애와 세계 평화에 대한 간절한 호소, 그리고 화해의 정신을 떠올린다”면서 “남북관계 파탄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평정심을 찾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화평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한 비핵화 원칙 △대화와 교류 협력 재개 및 개성공단 재개 △북핵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균비경쟁 및 안보적 이용 반대 등을 촉구하는 한편, 종교 지도자들이 “3.1정신을 이어 받아 인도주의적 나눔과 교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비폭력, 평화’ 정신 계승해야
남북 간 신뢰 회복 ‘강조’
비핵화·개성공단 재개 촉구
“지역적 ‘평화’ 공감대 형성하자”**

이에 앞서 5대 종교 대표자들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발언’이 진행됐다.

불교계 대표 발언에 나선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교과신부부장)은 “최근 남북한 상황을 보며 <죽음으로 남긴 20세기 증언>이란 책을 떠올렸다. 20세기 100년 역사를 통해 ‘미움으로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싸움으로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웅변한 책”이라며 “21세기 시대정신은 사랑과 평화로 남북문제를 해결할 것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20세기 역사를 반복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법 스님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분개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처럼 엄격하고 어른스럽게 문제를 다루되,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화와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며 “종교인들의 이러한 바람들이 정부에 잘 전달되어 지혜로운 길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종화 목사는 “3.1운동은 해방



3.1운동 비폭력평화 정신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지만 5대 종교 지도자가 2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들은 통일을 위해 갈망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전쟁으로 평화를 이루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며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순환’이 된다. 그보다 더 크고 강한 선(善)으로 이길 때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형진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남북개선을 위한 종교인들의 참여가 이날 기자회견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사무처장은 “3.1운동 당시 종교인들이 앞장서 조국을 위해 싸웠듯 오늘날 우리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앞장 서야 한다”며 “전 국민들에게 심각한 남북관계 상황과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림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수호, 호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종교인들은 민화평의 향후 계획을 제안했다. 도법 스님은 “민족의 평화와 화해 운동이 국민적 운동이 될 수 있

도록 지역을 순회하며, 많은 사람들과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민화평 각 종교 대표 심부름꾼은 평화재단 이사장 범문 스님, 김대선 원불교 前 평화교구장, 김홍진 천주교 서울대교구, 박남수 천도교 교령,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박경주 前 대한성공회 서울대교구장,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가 맡고 있다.

이날 범문 스님은 “요즘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은 북한과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 없다. 그런 반응들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대북 문제에 접근하며 ‘평화 통일 만이 우리의 희망’이란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익름 기자**

비구니 율사 묘엄 스님 회고전 열린다

불교박람회 ‘우리스님전’…발우 등 20여점

‘현대 한국불교 최초의 비구니 율사’ 묘엄 스님(1932~2011·오른쪽 사진)를 돌아보는 자리가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불교박람회)기간인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무역전시시장서 마련된다. 묘엄 스님은 파란만장한 근현대를 살아내며 비구니로서는 드물게 율사의 지위를 얻었고 이로 인해 여성 수행자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묘엄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의 식민통치와 해방, 한국전쟁 같은 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묘엄 스님의 일대기와 한국 비구니 승단의 변화를 다룬 <한계를 넘어서>에 따르면, 묘엄 스님은 1940년대 초중반 한반도 전역서 일어난 종교인인부 징집을 피해 당시 청담 스님이 주석한 대승사로 보내졌다. 이후 성철 스님의 조언과 독려 속에 율사 생활의 길로 들어섰다. 출가 후 열정 넘치던 묘엄 스님은 봉암사 결사구성원이 되어 한국불교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기도 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은 묘엄 스님의 길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한 승단 내 분위기가 변화하며 비구 스승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았고, 공식적인 최초의 비구니 교육자로 한국불교사에 이름을 올렸다. 묘엄 스님은 또한 조계종 5대 비구니 승가대학인 봉림사승가대학을 설립해 후학을 양성하고 비구니 스

님들의 단합과 여성 수행자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이외에도 한국불교사 최초의 비구니 율원을 설립, 비구니들에게 율장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비구니 율맥의 공식적인 전승이라는 새 전통을 세워 한국 비구니 법맥의 정통성을 확립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다. 이번 불교박람회 ‘우리스님전’은 묘엄 스님의 지난 업적과 발자취를 불자들이 물론,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수원 봉림사 측은 ‘우리스님전’을 위해 묘엄 스님과 관련된 유품 및 사진 자료들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주묘엄박물관 내 전시물은 물론, 달라이라마가 선물한 불상, 묘엄 스님이 사용하던 안경과 다구, 생전 메모, 발우 등이 20여 점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묘엄 스님의 일대기에 대한 3D 애니메이션도 제작, 공개돼 많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불교계 최초 투자회사 ‘하나연’ 설립

클라우드펀딩, 불교사업 투자

불교계 투자전문회사 ‘하나연’이 설립됐다. 하나연 장혁 대표는 2월 29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회견담화를 열고 하나연 출범을 알렸다.

하나연은 클라우드펀딩 전문회사 및 직접투자사로 구성된다. 클라우드펀딩은 인터넷 등을 활용해 목적사업에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후원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하나연은 불교대중화를 위해 공익을 위한 ‘1 lantern’ 사업과 수익창출을 위한 직접 투자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1 lantern’은 불교 관련 문화·예술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나연이 진행하는 클라우드펀딩은 사찰 연동달기를 비롯한 불교소사업 지원 등 1억원 미만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투자는 힐링캠핑장, 문화사업 등 1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노덕현 기자**

년 템플스테이 참가자 13.5% 증가

메르스 여파에도 관광주간 효과 ‘톡톡’ 내·외국인 모두 서비스·응대에 호평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2014년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3월 3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정기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통계를 발표했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총 21만9438명(내국인 18만7101명·외국인 3만2337명)이다. 2014년 19만3388명에 비해 약 13.5%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5월과 10월 진행된 관광주간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79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들은 내·외국

인 모두 ‘인력(서비스 및 응대태도)’ 부문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다음으로는 시설·애호도 등이 꼽혔다. 전체 만족도 역시 2014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문화사업단은 올해에도 봄·가을 여행주간에 맞춰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사찰시설 개선과 아생여당 브랜드화, 컨설팅사업 진행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예년에 비해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며 “여름방학이나 휴가기간 등을 이용한 장기템플스테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올해 각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우공양 운영기물을 통일하기 위해 불교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전통 발우공양 운영기물’을 제작했다. 통도사 소장 천수동 및 송광사 더도리그릇 등 18~19세기 사찰에서 사용하던 기물을 참고했다. 이번에 제작된 기물은 더도리그릇(국통·법통)과 퇴수통, 천수주전자, 송승주전자 등 5종이다. 기물은 스테인리스에 티타늄 코팅을 해 실용성을 높이면서도 전통적 느낌 살려 발우공양 취지에 맞도록 디자인했다. 문화사업단은 발우공양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 20여 곳에 시범적으로 보급해 실무자 및 참가자들의 반응을 살필 예정이다. 이외에도 템플스테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매뉴얼’을 개발, 일선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발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송파 세 모녀” 비극, 또 발생하지 않길” 생활고를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2주기를 추모하는 극락왕생기도가 광화문에 올려 퍼졌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운, 이하 사회노동위)는 2월 26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송파 세 모녀 2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행사는 극락왕생기도, 추모식에 이어 사회노동위원장 혜운 스님, 유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사회노동위원장 혜운 스님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이웃과 함께 합심하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다시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애숙 조직국장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2년 전, 정부는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가난으로 안타까운 목숨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일명 ‘송파 세 모녀 법’이 고인들에 대한 목욕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사회노동위원장 혜운 스님을 비롯해 사회노동위 소속 스님 10여 명, 빈곤사회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철폐 광화문공동행동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익름 기자**

심가
33
息伽
- 진귀 화두집 -

© 도서출판 왕산

드디어 출판되다..

수행자라면 한 번은 참고해 볼만한 화두집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教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 (석가불 품은 53경)
드디어 출판되다!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제 1 見 석가를 품다	제 19 見 참새집	제 37 見 자식인연
제 2 見 평은 초대장	제 20 見 병(病)든 부처	제 38 見 형제 인연
제 3 見 법(法)을 버리다	제 21 見 생화와 조화	제 39 見 도반인연
제 4 見 차한 잔	제 22 見 직거래?	제 40 見 부부인연
제 5 見 해인 삼매	제 23 見 묘해(妙慧)	제 41 見 대방광을 화엄경..
제 6 見 창조와 표절	제 24 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 42 見 왕(대통령)
제 7 見 아부선사 웃다	제 25 見 천도(遷度)란?	제 43 見 독각(獨覺)은?
제 8 見 요지경	제 26 見 고구마 부처?	제 44 見 <나>
제 9 見 말 많은 석가?	제 27 見 마음속 부처	제 45 見 대도(大道)란?
제 10 見 히말라야 영화	제 28 見 개나리는 부처다	제 46 見 부처님 오신날
제 11 見 동시구족	제 29 見 범부와 선지식	제 47 見神通(神通力)
제 12 見 법맥?	제 30 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 48 見 보시(기부)
제 13 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 31 見 다음생	제 49 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 14 見 윈드서핑	제 32 見 종(鐘)	제 50 見 업(욕심의 흐름)
제 15 見 발효식품	제 33 見 스승을 찾아서	제 51 見 평온을 만나다
제 16 見 한 맛	제 34 見 대자유인의 길	제 52 見 화엄경 7행시
제 17 見 뒤바뀐 안목	제 35 見 집착을 놓다	제 53 見 평은 축제
제 18 見 평온한 남자	제 36 見 종교와 현실	

☎ 도서출판 왕산

*** 문의 1899-9532**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